

# 미국 영어 대면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 연구

최인지

(경상대)

**Choi, Inji (2016). A Study on the Discourse Marker *well* in American English Face-to-Face Convers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4), 343-374.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the discourse marker *well* in a corpus of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to determine its role in marking structural and interactional functions. In relevance theory, the discourse marker *well* is seen as a signal that reorients the hearer to a context of assumptions yielding the speaker's intended interpretation (Blakemore, 2002). Adopting this perspective of relevance theory, this paper shows that the functions that *well* may serve can be inferred from its encoded procedural meaning together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utterance is the most relevant one compatible with the speaker's abilities and preferences. Excerpts from the data illustrate how *well* initiates the speaker's turn and holds the floor, how it indicates a shift of topic, resumption, and addition of information, how it introduces direct reported speech, and how it signals insufficiency, agreement, and disagreement. Of the ten functions used in the corpus, the most frequently occurred one involves turn management. The discourse marker *well* in turn-initial positions is also frequently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feelings and reactions as a marker of interactional functions.

**주제어(Key Words):** 담화표지어 *well*(discourse marker *well*),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 구조적 기능(structural function), 상호작용적 기능(interactional function)

## 1. 서론

담화표지어는 담화 층위에서 담화 단위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언어 표현을 말한다. 대표적인 담화표지어로 *well*, *but*, *so*, *indeed*, *now*, *as a result*를 꼽을 수 있으며 통사적으로 이질적인 부류에 속하는 이 표현들은 담화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의미로 구분된다.

담화표지어 *well*은 구어 영어(spoken English)에서 *yeah, oh, and*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담화표지어 중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기도 하다(Aijmer, 2013; Aijmer & Simon-Vandenberg, 2003; Bolinger, 1989; Carlson, 1984; Fraser, 1990; Heritage, 2015; Jucker, 1993; Lakoff, 1973; Owen, 1981;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 Schiffrin, 1987; Schourup, 1985, 2001; Svartvik, 1980; Wizerbicka, 1976). 기존 연구는 담화표지어 *well*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 기능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또한 *well*의 기능이 하나의 핵심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범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미국 영어 모어 화자의 대면 대화(face-to-face conversation)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의 의미 및 기능을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erber and Wilson(1986/1995)의 관련성 이론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고자 하는 인간 인지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반으로 관련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발화 해석을 설명한다. 관련성 이론에서 의미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와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Blakemore(2002)를 따라 담화표지어 *well*은 자신이 포함된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이러한 의미가 대면 대화에 나타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대화는 대화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무의식적이며 즉각적인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청자가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화를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화 해석에 필요한 맥락으로 청자의 주의를 돌리고 선행담화와 후행담화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청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발화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고 인지 효과를 도출하는 *well*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well*이 부사로 사용되어 발화의 명제적 의미에 기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영어 대화 코퍼스를 기반으로 *well*이 담화표지어로서 구조적 기능과 상호작용적 기능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담화표지어 *well*에 관한 대면 대화 분석으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들의 대화 분석(de Klerk, 2005)과 영국 영어 대면 대화를 분석한 경우(Aijmer, 2013) 및 말차례 시작 부분에 쓰인 *well*의 기능을 분석한 경우(Heritage, 2015)가 있으나 미국 영어 대화 코퍼스에서 말차례 시작과 중간 부분에 나타난 *well*을 모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기능 분석 방식은 Tognini-Bonelli(2001)가 제시한 코퍼스 주도 방식(corpus-driven approach)으로 코퍼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빈도 분포를 기반으로 범주를 분류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담화표지어 *well*의 의미

담화표지어 *well*에 대한 연구는 지난 40년간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다. 담화표지어 *well*의 의미는 Lakoff(1973)의 응답의 불충분함(insufficiency), Schiffrin(1987)의 일관성(coherence) 결여, Jucker(1993)의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으로부터의 이탈(divergence)과 같이 대화상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과 Carlson(1984)의 대화 게임(dialogue game)에서 대화 이동(move)의 수락, Bolinger(1989)의 규범 수락, Blakemore(2002)의 후행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 것과 같이 *well*의 부사적 의미인 '잘(in a good way)'이라는 의미와 일치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Lakoff(1973)에 따르면 질문자가 요청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 답변이 간접적일 때 혹은 발화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답변의 일부여서 불충분한 정보일 때 *well*이 사용되며, *well*이 쓰인 응답은 일종의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Schiffrin(1987)은 일관성에 기반을 둔 접근법에 따라 *well*의 의미적 내용은 결여되어 있으나 후행담화의 내용이 선행담화의 내용에서 벗어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1)의 예시처럼 선행 발화 없이 *well*로 담화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 *Well*, isn't it beautiful outside! (Schourup, 2001, p. 1027)

이 경우 실제 발화되지 않은 선행발화의 존재를 가정할 수도 있으나 Schourup(2001)이 지적하였듯이 (1)의 화자는 상상 속의 발화보다는 좋은 날씨와 같이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자 *well*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2)의 예시처럼 *well*만 사용하여 시험 결과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행발화 없이 쓰였으므로 어떠한 조건에서 *well*이 일관성 결여를 표시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2) [시험 결과를 알아보고 돌아온 청자에게]  
*Well?* (Blakemore, 2002, p. 134)

Jucker(1993)는 관련성 이론에 기초하여 *well*의 핵심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Jucker(1993)에 따르면 담화표지어 *well*은 선행발화에 의해 형성된 맥락이 후행발화를 해석 하는데 있어 가장 관련성을 갖는 맥락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관련성 이론에서 관

련성이란 긍정적인 인지 효과(positive cognitive effect)와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의 함수로 정의된다(Sperber & Wilson, 1986/1995; Wilson, 2014). 인지 효과란 인지 체계(cognitive system) 내에서 발생하는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를 말하며 새로운 가정(assumption)과 기존 가정을 결합하여 새 결론을 도출하거나, 새 정보가 기존 가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그 가정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정보가 기존 가정과 모순되어 그 가정을 제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긍정적인 인지 효과란 진실된 결론, 기존 가정의 보증된 강화와 같이 긍정적으로 인지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말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발화가 더욱 많은 인지 효과를 일으킬수록 그 발화는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발화가 인지 효과를 도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발화는 관련성을 덜 갖는다.

Jucker(1993)는 *well*의 의미를 즉시 접근 가능한 맥락이 후행발화의 해석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후행발화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청자가 재조정(renegotiation)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담화표지어 *well*은 후행발화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Jucker(1993)의 설명 또한 연속된 발화 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 Schiffrin(1987)의 관점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따라서 Jucker(1993)의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well*의 의미 또한 선행발화 없이 쓰인 (1)과 (2)의 예시를 설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lakemore(2002)가 지적했듯이 (3)의 예시처럼 *well*의 선행발화로 접근 가능하게 된 맥락이 후행발화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맥락인 경우 어떻게 Jucker(1993)가 제시한 것처럼 *well*이 청자가 이 맥락을 재조정해야 하는지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Do you remember Tom? *Well*, he's just bought a motorbike.

(Blakemore, 2002, p. 135)

Blakemore(2002)는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담화표지어 *well*은 자신이 포함된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 기제(perceptual mechanism)는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극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 인간의 인출 기제(retrieval mechanism)는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가정을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추론 기제(inferential mechanism)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Wilson & Sperber, 2012). 따라서 인간의 인지는 가능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인지 효과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모든 발화가 최대한의 관련성(maximal relevance)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본다. 어떤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가질 때는 청자가 그 발화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들일만한 관련성이 충분히 있고 화자의 능력과 선호도에 부합하는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일 때를

말한다. 이는 관련성 이론에서 인간의 인지는 관련성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관련성에 대한 인지 원리(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와 모든 발화는 최적의 관련성에 대한 추정(presumption of optimal relevance)을 전달한다는 관련성에 관한 의사소통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로 설명된다. 관련성 이론은 이 두 가지 관련성의 원리에 기초하며 이 원리는 모든 발화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Sperber & Wilson, 1986/1995).

모든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에 대한 추정을 전달한다면 화자는 왜 *well*을 사용하여 이 담화표지어가 포함된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일까? Blakemore(2002)는 그 해답을 관련성에 대한 의사소통 원리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 참여자들은 화자 개인의 한계나 신체적 혹은 도덕적 제약으로 인해 화자가 맥락에서 요구되는 만큼 항상 완벽하게 최대한의 관련성을 갖는 발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관련성을 갖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는 맥락에서 청자로 하여금 주어진 발화를 처리하도록 *well*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담화표지어 *well*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특정 가정들이 청자에게 명확하지 않다는 화자의 믿음(belief) 때문이라는 것이다. Blakemore(2002)는 Jucker(1993)가 맥락의 재조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던 예시들은 최적의 관련성을 얻기 위해 화자가 의도한 해석을 낳는 맥락으로 청자의 주의를 새롭게 돌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청자에게 관련성을 갖는 것에 관해 화자가 판단할 때 어떤 가정들이 청자에게 명시적인지<sup>1)</sup> 즉, 주어진 순간에 어떤 가정들을 청자가 고려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발화 해석에 요구되는 맥락 가정(contextual assumption)이 단순히 청자가 이미 생각해낸 가정 중 하나여야 최적의 관련성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 해석에 요구되는 가정은 청자의 기억 속에 있는 가정 중 하나이거나, 발화 자체에 의해 촉발된 가정일 수도 있고, 청자에게 명확해지도록 화자가 유도한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맥락의 조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Jucker(1993)가 제시한 맥락의 재조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2)에서 *well*은 화자가 시험 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청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예시 (3)의 경우 ‘Do you remember Tom?’이라는 발화를 통해 청자가 Tom이라는 개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발화는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혹은 화자가 왜 이런 발화를 하였는지 청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후행발화는 청자가 접근 가능한 맥락에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well*이 사용된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 의미는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구분된다(Blakemore, 1987,

1) 관련성 이론에서 어떤 사실이나 가정이 명시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정신적으로 표상될 수 있고 이 표상(representation)을 사실이라고 혹은 사실일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Sperber & Wilson, 1986/1995).

2002).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의 구분은 해석의 두 단계 즉, 해독 과정(decoding phase)과 추론 과정(inferential phase)과 연관된다. 해독 과정에서 언어 표현은 의미적 표상(semantic representation)으로 바뀐다. 의미적 표상이란 화자의 의미를 상당 부분 미결정(underdetermine)하는 논리 형식(logical form)을 말한다. 추론 과정은 이 의미적 표상을 입력물(input)로 취하여 완전한 명제 형식(fully propositional form)으로 발전시킨다. 완전한 명제 형식이란 사태(state of affairs)를 나타내는 개념적 표상을 말하며 참이나 거짓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접근 가능한 맥락 가정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화의 전반적인 해석을 이루는 외측(explicature)과 함축(implicature)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sup>2)</sup> 언어적 해독을 통해 회복된 논리 형식과 이 논리 형식을 구체화하여 도출된 외측, 외측과 맥락 가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함축은 모두 개념적 표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모든 언어 표현이 개념을 부호화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표현에는 *so*, *but*, *therefore* 같이 여러 가능한 추론 과정 중 어떤 것을 청자가 고려하도록 요구하는지 표시함으로써 추론 과정을 제약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개념을 부호화하기 보다는 자신이 포함된 발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여 청자의 전반적인 처리 노력을 감소시킨다. 즉, 절차적 의미란 화용적 추론이 진행되어야 하는 방식에 제약을 가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해주는 특정한 연산적 과정(computational process)을 표시한다.

Blakemore(2002)에 따르면 *well*은 자신이 포함된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다. Schourup(2001) 역시 담화표지어 *well*은 개념적 정보를 부호화하기 보다는 청자로 하여금 (4)와 같은 형식의 외측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추론 과정에 기여하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다고 보았다.

(4) The speaker is saying with consideration that *p*. (*p*는 발화에 의해 표현된 명제임)

그러나 Blakemore(2002)는 (4)와 같은 외측이 어떻게 발화의 관련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well*이 그녀가 제시한 절차적 의미를 갖는지 또는 단순히 인지 효과를 도출하는데 수반되는 추론 과정을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go-ahead signal)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Blakemore(2002)는 *well*이 화자가 생각하기에 특정 가정이 청자에게 명시적이지 않을 때 사용되어 긍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녀가 제시한 의미에도 어느 정도의 불충분함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장

2) 외측이란 발화의 불완전한 개념적 표상에서 나온 의미를 부분적으로 맥락을 통해 발전시킨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발화를 논리 형식으로 해독하는 과정과 논리 형식에 대한 추론적 전개를 통해 완전한 명제 형식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함축은 오로지 화용적 추론만으로 도출되는 의사소통된 가정이다. 즉, 함축이란 화자가 의도한 맥락 가정 혹은 맥락 함의인 것이다.

에서 대면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나 불충분함은 *well*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발화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담화표지어 *well*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간의 대립은 *well*의 다양한 기능 분석에서도 두드러진다. 다음 절에서는 *well*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2.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

담화표지어 *well*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담화표지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절에서는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을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만들어낸 예시를 통해 제시한 경우와 이야기 담화, 대화 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Blakemore, 2002; Cuenca, 2008; de Klerk, 2005; Heritage 2015; Jucker, 1993; Müller, 2004; Norrick, 2001; Schiffrin, 1987; Schourup, 2001).

Jucker(1993)는 *well*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구분하였는데 현재발화나 선행발화의 내용 층위에서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는 불충분 표시, 상호대인적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리키는 체면 위협 완화소(face-threat mitigator), 주제 전환을 표시하거나 직접화법을 도입하는 틀(frame) 표시 장치, 그리고 지연(delay)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Schourup(2001)은 담화표지어 *well*이 무엇인가가 뒤따라 나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계속적(continuative) 기능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Quirk et al.(1985)이 시작표지어(initiator)로 분류한 *well*의 기능과 동일하다. 또한 Schourup(2001)은 *well*이 발화 시작 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사용되어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제스처적’ 감탄사(‘gestural’ interjection)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왜 *well*이 인용구의 시작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담화표지어 *well*은 *well*이 쓰인 바로 그 순간의 화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용구의 첫 부분에 쓰인 *well*은 인용된 화자가 생생하게 즉석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well*과 함께 쓰인 인용구는 이야기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말해진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용구의 신뢰도를 시사한다. Blakemore(2002)는 *well*의 후행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well*의 절차적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well*이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담화표지어 *well*은 반대되는 주장 앞에 쓰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부정할 때, 양보적 반대 의견(concessive dissent)을 표현할 때, 방어적이며 조심스럽게 응답할 때, 요청에 대한 허락이나 거절을 할 때, 표현이나 전략을 수정할 때, 모호함을 표현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할 때, 적절한 억양과 함께 질문으로 쓰일 때, 깜짝 놀랐다는 것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표현할 때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Schiffrin(1987)은 인터뷰 형식의 대화 분석을 통해 질문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선택권이 답변의 내용에 수반되지 않을 때 *well*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질문을 알아들었다는 최소한의 표시를 한 후 답변을 확장시킬 때 *well*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원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어 대답이 지연될 때에도 *well*이 쓰이며, 요청에 대해 거절할 때, 자신의 말을 수정하거나, 묘사에서 평가로 발화 전환을 표시할 때, 직접화법을 표시할 때에도 담화표지어 *well*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Norrick(2001)은 이야기 담화 분석을 통해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well*은 이야기의 시작을 표시하거나 이야기를 요약함으로써 끝을 가리키는데 쓰일 수 있고 이전 주제로의 회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야기 구조의 문제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Norrick(2001)은 *well*이 이야기 구조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담화표지어(narrative discourse marker)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Müller(2004)는 독일인 EFL 학습자들과 원어민 화자들의 이야기 담화에 사용된 담화표지어 *well*을 비교, 분석하여 *well*의 기능을 분류하였다. Müller(2004)는 *well*이 세 개의 층위 즉, 국부적 층위(local level), 구조적 층위(structural level), 대화 층위(dialog level)에서 사용된다고 제시하였다. 국부적 층위는 단어나 구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Schiffrin(1987)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단어나 구를 수정하거나 바꾸어 말하는 기능과 올바른 표현을 찾는 기능을 포함한다. 구조적 층위에서 사용되는 *well*은 직접 화법을 도입하거나 이야기의 시작 혹은 이전 주제로의 회귀,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나타내거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는 기능을 말한다. 대화 층위는 상호작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기능으로 Lakoff(1973)가 제시한 것처럼 불충분한 대답에 쓰인 경우, Schiffrin(1987)이 제시한 것처럼 지연된 대답에 쓰인 경우 및 *wh*-의문문의 직접적인 대답에 쓰인 경우, 자문자답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쓰인 경우,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끼어들었을 때 다시 말 차례(turn)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계속하는 경우, 이전 발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발화를 도입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화 담화를 분석한 연구로는 de Klerk(2005), Cuenca(2008)와 Heritage(2015)를 들 수 있다. de Klerk(2005)는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코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어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을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기능은 말을 이어가기에 앞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능으로 전체 기능의 63%에 달하였고, 두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된 기능은 오해나 착오로 인해 청자가 어떤 가정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주제의 변화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기능이 세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말차례의 변화를 표시하는 기능은 2%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Cuenca(2008)는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영어 버전과 스페인어 버전, 카탈로니아어 버전에 사용된 담화표지어 *well*을 비교하였다. Cuenca(2008)에 따르



면 담화표지어 *well*은 담화의 시작이나 끝을 가리키거나, 주제의 변화, 이전 주제로의 회귀, 적절한 형태의 표현을 찾을 필요를 가리키는 구조적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불확실성, 부분적 동의, 부분적 의견 차이, 대답을 나타내는 양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Heritage(2015)는 *well*로 시작하는 말차례 분석을 통해 주제 전환이나 주제 또는 대화 종결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을 보였다. 상대방이 묘사하는 어떤 사태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환경에 일치하여 *well*로 말차례를 시작하면서 호응을 보이는 경우, 거절이나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응답이나 간접적인 대답 앞에 쓰이는 경우, *well*로 시작되는 응답이 확장되어 말차례 구성단위(turn constructional unit)가 추가되는 경우 즉, 적절한 대답을 주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는 모두 10% 내외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 요약

<i>well</i> 의 기능	제시된 연구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	Jucker(1993), de Klerk(2005), Mullür(2004), Cuenca(2008), Heritage(2015)
이전 주제로의 회귀	Norrick(2001), Müller(2004), Cuenca(2008), Heritage(2015)
대화 시작/말차례 시작/ 이야기의 시작 표시	Norrick(2001), Schourup(2001), de Klerk(2005), Müller(2004), Cuenca(2008), Heritage(2015)
구조적 기능 대화 마무리/ 이야기의 끝 또는 결론 표시	Norrick(2001), Mullür(2004), de Klerk(2005), Cuenca(2008), Heritage(2015)
직접화법 도입	Schiffrin(1987), Jucker(1993), Schourup(2001), Müller(2004)
표현 수정, 바꾸어 말하기	Schiffrin(1987), Blakemore(2002), Mullür(2004), de Klerk(2005)
적절한 표현 찾기/ 말차례 유지/지연 장치	Jucker(1993), Mullür(2004), de Klerk(2005) Cuenca(2008)
불충분 표시/확장된 답변	Schiffrin(1987), Jucker(1993), Mullür(2004), Heritage(2015)
상호작용적 기능 의견 차이/부정/부분적 동 의/평가	Jucker(1993), Blakemore(2002), Mullür(2004), Cuenca(2008), Aijmer(2013), Heritage(2015)
체면 위협 완화소/마지못한 또는 꺼리는 입장 표시/공손 표지	Jucker(1993), Blakemore(2002), Cuenca(2008), Aijmer(2013), Heritage(2015)

요청에 대한 허락/거절	Schiffrin(1987), Blakemore(2002), Heritage(2015)
응답 촉진 질문	Blakemore(2002), de Klerk(2005)
자문자답의 대답	Mullür(2004)
호응	Heritage(2015)
깜짝 놀람을 표시	Blakemore(2002)
강조	Blakemore (2002)
의견 제시	Mullür(2004)
상대방의 이야기 구조의 문 제점 환기	Norrick(2001)

Heritage(2015)는 거절이나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 *well*은 체면 위협 행위에 연루되고 싶지 않는 화자의 꺼려하는 입장 또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는 *well*의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Aijmer(2013) 또한 대화 분석을 통해 *well*이 동의할 때나 의견 차이를 보일 때 화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다기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동의를 표현할 때 *well*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가지못해 동의한다는 것을 표현하며 거절, 오류 수정, 부인, 비판과 같은 의견 차이를 표현할 때 이를 완화시키는 태도도 함께 전달한다는 것이다. Baiat, Coler, Pullen, Tienkouw and Hunyadi (2013)는 이중 언어 화자와 다중 언어 화자들의 영어 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담화표지어 *well*이 응답표지어(response marker)의 기능을 하면서 시작표지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한 가지 기능으로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담화표지어 *well*의 다기능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담화표지어 *well*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종류가 다양하며 둘째, 담화표지어 *well*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Jucker(1993), Schourup(2001), Blakemore(2002)는 관련성 이론에 기초하여 담화표지어 *well*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고 그 핵심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나 실제 담화에서 사용된 예시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de Klerk(2005)의 연구는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대화를 분석하였으나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의 대화가 아니었으며, Heritage(2015)는 말차례 시작 부분에 사용된 *well*의 기능만을 분석하였고, Aijmer(2013)는 영국 영어 코퍼스를 분석한 연구였다. 본 연구는 미국 영어 원어민의 대면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의 다기능성을 관련성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실제 대화에서 *well*이 사용된 구조적 기능과 상호작용적 기능을 살펴보고, *well*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Blakemore(2002)가 제시한 철차적 의미로 일관되게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코퍼스 분석에 기초한 연구로 Santa Barbara Corpus of Spoken American English(SBCSAE)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SBCSAE는 미국 전역에서 수집된 담화 모음으로 다양한 지역, 연령대와 성별, 직업,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의 전형을 나타내며, 대면 대화가 주를 이루지만 카드 게임, 음식 준비 과정에서의 대화, 여행 가이드의 말, 직장에서의 대화, 설교, 교실 담화, 이야기 담화 등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기록하였다(Du Bois, Chafe, Meyer, & Thompson, 2000). 각각의 대화는 Du Bois et al.(1993)의 전사체계를 바탕으로 전사되었다.<sup>3)</sup>

본 연구는 SBCSAE Part 1에 포함된 10분에서 20분 간 지속된 대화 14편 중 대면 대화 10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SBCSAE에 나타난 *well*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한 뒤 표 1을 기반으로 범주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well*의 예시를 3회 이상 반복하여 분류한 뒤 비교하였다. 또한 Aijmer(2013), Baiat et al.(2013), Heritage(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담화표지어 *well*이 동시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 기능들을 함께 결합하여 분류하였다. *well*이 담화표지어로서 쓰이지 않고 'He plays the piano *well*.'처럼 부사로 쓰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4. 대면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

### 4.1 대면 대화에서 담화표지어 *well*의 위치

대면 대화에서 담화표지어 *well*은 말차례 시작(turn initial)과 말차례 중간(turn medial)에 나타난다. 말차례 시작이란 예문 (5)에서처럼 말차례의 첫 부분을 담화표지어 *well*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SBCSAE에 사용된 전사체계는 억양 단위(intonation unit)를 한 줄로 표시하고, 분절 억양 단위(truncated intonation unit)는 -로, 분절 단어(truncated word)는 ,로, 말 겹침(speech overlap)은 [ ]로 표시한다. 쉼(pause)의 경우 0.2초 이내의 짧은 길이의 쉼은 ..로, 0.3초에서 0.6초 정도의 중간 길이의 쉼은 ...로, 0.7초 이상의 긴 쉼은 ...와 함께 그 시간의 길이가 표시된다. 대화참여자의 성도(vocal tract)에서 생성된 비언어 소음(nonverbal noise)은 괄호 안에 그 소음을 묘사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목을 가다듬는 소리는 (THROAT)로 표시하며 그 외에도 (SWALLOW), (SNIFF), (SNORT), (YAWN) 등이 있다. 소리가 들릴 정도의 들숨은 (H)로, 날숨은 (Hx)로 표시하며, 웃음은 @, 언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 사용된 성문폐쇄음(glottal stop)은 %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X X>로 표시한다.

- (5) HAROLD: [And in] the front yard-  
 You saw [2that X2],  
 PETE: [2I saw2] that,  
 .. right [3in3] [4the front,  
 HAROLD: [3But3] --  
 JAMIE: [3Well3] [4what is it,  
 paint4]?

[SBCSAE 02]<sup>4)</sup>

예시 (5)에서 Pete와 Harold, Jamie는 아이들이 마당에 페인트를 던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Pete가 앞마당에 묻은 페인트를 보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Harold와 Jamie가 말을 하려 한다. Jamie는 *well*을 사용하여 자신의 말차레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말차레 중간이란 말차레 첫 시작 부분이나 말차레 마지막 부분이 아닌 위치를 말하며 예문 (6)처럼 발화 중간(utterance medial) 부분에 사용된 경우나 예문 (7)처럼 발화의 시작(utterance initial) 부분에 사용되면서 말차레 첫 시작 부분은 아닌 경우를 말한다.

- (6) KENDRA: [2He's gonna be an engineer,  
 I'm2] gonna be a manager of a Merrill Lynch branch,  
 KEN: O[3=h .. ho ho3].  
 KENDRA: [3(H) I'll be making3] *well* over seventy,  
 I'll be making a lot more than hi=[m].

[SBCSAE 13]

- (7) MARILYN: You have to watch for the bad breaks.  
 PETE: .. Right.  
 MARILYN: ... It's pretty funny.  
 ... *Well* let's just ... woop it up and put a little olive oil  
 in here, so these don't burn to death.

[SBCSAE 03]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말차레 시작에 나타난 *well*은 *yeah*, *mhm*, *oh*, *OK*가 *well*을 선행

4) [SBCSAE 02]란 SBCSAE Part I에 포함된 14편의 대화 모음 중 2 번째 대화를 말한다.

하여 말차례 처음에 나타난 경우를 포함하여 총 161회로 전체의 59.9%를 차지하며, 40.1%를 차지한 말차례 중간보다 약 1.5배 정도 많이 사용되었다.

표 2. 말차례에서 *well*의 출현 위치

위치	빈도	비율
말차례 시작	156	58%
말차례 시작 ( <i>yeah, mhm, oh, OK</i> 뒤에 오는 <i>well</i> )	5	1.9%
말차례 중간	108	40.1%
합계	269	100%

de Klerk(2005)은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코사족 사람들의 영어 대화에서 말차례 시작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이 전체 빈도의 45% 정도를 차지하며, 앞으로 나올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청자를 안내하는 담화표지어의 특성상 말차례 시작은 담화표지어의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우는 Aijmer(2013)로 말차례 시작에 나타난 *well*은 전체의 62%를 차지하여 말차례 중간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Aijmer(2013)는 de Klerk(2005)과 마찬가지로 이는 말차례 시작이라는 위치가 담화표지어 *well*이 수행할 기능에 대한 신호로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표 3을 보면 말차례 중간에 *well*이 나타날 때, 발화 시작 부분에 쓰인 경우는 *OK* 뒤에 *well*이 따라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 42회로 38.9%를 차지하였으며 60% 이상은 발화 중간에 나타났다.

표 3. 말차례 중간에 위치한 *well*의 분포

위치	빈도	비율
발화 시작	41	38%
발화 시작( <i>OK</i> 뒤에 오는 <i>well</i> )	1	0.9%
발화 중간	62	57.4%
발화 중간( <i>mhm, oh, OK</i> 뒤에 오는 <i>well</i> )	4	3.7%
합계	108	100%

담화표지어 *well*은 앞 또는 뒤로 쉼(*pause*)이 발생하여 주변 발화와 분리될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쉼이 발생한 뒤 *well*이 사용된 경우는 96회로 35.7%를 차지하였다. *well* 앞에 쉼이 발생한 유형은 예문 (8)처럼 말차례 시작 지점, 즉 말차례 순서 교대가 일어나는 지점에 쉼이 발생한 경우와 예문 (9)처럼 말차례 내에서 쉼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말차례 시작 지점에서 일어나는 쉼은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청자인 Marilyn이 Pete의

말을 받아 말을 잇는 화자가 되면서 쉬는 쉽이며, 말차례 내에서 쉬이 발생한 경우는 (9)처럼 동일한 화자의 말차례 속에서 쉬이 발생한 경우이다. 말차례 시작 지점에 쉬이 발생하고 *well* 이 쓰인 경우는 67회로 말차례 내에 쉬이 발생한 경우보다 약 2.3배 정도 많았다.

표 4. 쉬의 위치

쉬의 유형		빈도	비율
<i>well</i> 앞에 발생한 쉬	말차례 시작 지점	67	24.9%
	말차례 내	29	10.8%
<i>well</i> 앞, 뒤에 모두 쉬이 발생한 경우	말차례 시작 지점	4	1.5%
	말차례 내	1	0.4%
쉬이 없는 경우		168	62.4%
합계		269	100%

- (8) ROY: ... I'm gonna use some of that.  
 PETE: Does tartar sauce go with .. with Cajun spices.  
 MARILYN: ... *Well* we could make --  
 PETE: ... I mean,  
 that doesn't matter,

[SBCSAE 03]

- (9) DORIS: ... (H) Didn't you notice em,  
 as you went out,  
 ... all beautiful colors?  
 ... So pretty.  
 .. *Well* anyway,  
 they were on the rack.  
 ... (H) And uh,

[SBCSAE 11]

*well*의 앞, 뒤에 모두 쉬를 두는 경우는 총 5회 나타났다. (10)과 같이 말차례 시작 지점에서 쉬를 두고 *well*을 발화한 뒤 다시 쉬를 두는 경우는 4회였으며 예문 (11)처럼 말차례 내에서 *well*의 앞, 뒤로 쉬이 발생한 경우는 1회였다.

- (10) PAMELA: ... These little seedpods,  
 ... (H) that have been sent [our way].

DARRYL: [(H)] ... *Well*,  
 .. sometimes for me,  
 they are a whip and a hairshirt.

[SBCSAE 05]

(11) HAROLD: ... Except those,  
 .. *well*=,  
 ... I don't know,  
 the- --..  
 the bottom ones [don't have flat noses either].

[SBCSAE 02]

본 연구에서 씬 없이 *well*이 사용된 경우는 168회로 전체의 62.4%에 해당하였으나 Aijmer(2013)에서는 93.5%에 달해 씬과 함께 *well*이 나타난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Aijmer(2013)는 씬과 함께 *well*이 쓰이는 경우 상대방을 고려하거나 주저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씬 없이 *well*이 쓰이는 경우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대면 대화에 나타난 *well*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 4.2. 대면 대화에서 담화표지어 *well*의 기능

### 4.2.1. 구조적 기능

대면 대화에 나타난 구조적 기능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말차례 시작 표시이다. 예문 (12)에서 Darryl은 죽음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amela가 *well*을 사용하여 말차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Darryl과 Pamela가 동시에 말을 계속하여 말이 겹치지만 곧 Pamela가 말차례를 갖게 되었다. 관련성 이론에 따라 이 경우를 살펴보자면 *well*을 뒤따르는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well*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Pamela의 발화에 Darryl의 주의를 끌게 되며 Pamela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것이다.

(12) DARRYL: You know,  
 <X when X> you're reading fiction,  
 or,  
 .. (H) or articles,  
 or history or something like that,

(H) but .. but,  
 t- for me it's very difficult,  
 to pick up a b=ook about d=eath.  
 .. (H) That someone's written about death,  
 because it's [bullshit.

PAMELA: [(H) <% Well --

DARRYL: Who knows what death] is.

PAMELA: What --

d- %>] --

%what what this man has put in the boo- --  
 one.

You haven't read the book,  
 so you don't know.

[SBCSAE 05]

하지만 *well*을 사용한다고 해서 말차레를 항상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의 대화에서 Sam이 바질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Angela가 *well*을 사용하여 Sam의 주의를 끌고자 하였으나 Sam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이어간다.

(13) SAM: ... Yes,  
 that's how I've- --  
 (H) I don't have any this year,  
 but I've grown it other years.

ANGELA: .. (H)= [<X Well X>] --

SAM: [There's] no problem.  
 It will not take any frost.  
 Soon as the b- --

[SBCSAE 11]

말차레 시작 표시 기능은 다른 구조적 기능과 함께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예문 (14)에서 시간이 늦었으니 모두들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Miles가 *well*을 사용하여 말차레를 가져오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well*이 말차레 시작 표시와 주제 전환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주제는 새로운 맥락으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며 맥락의 변화는 처리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자는 청



자의 처리 노력을 줄여주고자 *well*이라는 담화표지어를 사용하여 기존 맥락의 흐름이 끊기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Miles는 *well*의 질차적 의미를 통해 오늘 함께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라는 개체에 대한 맥락 가정을 촉발시킴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맥락으로 청자를 인도한다.

- (14) MILES: .. ten o'clock (Hx).  
 ... Look like it's bedtime for some folks here.
- HAROLD: .. Y=ep.
- JAMIE: Yeah=,  
 actually [it's] pretty much bed time for me soon.
- PETE: [Hm].
- HAROLD: ... (TSK) Y=ep.
- MILES: ... *Well* that was good ice cream.  
 What kind of ice cream was that.
- HAROLD: .. Bud's.
- JAMIE: ... Pralines and .. cream- --  
 What is it [called]?

[SBCSAE 02]

주제 전환의 기능은 말차례 시작뿐만 아니라 말차례 중간에서도 나타난다. (15)의 예문을 보면 Marilyn과 Pete가 저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Marilyn의 직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Marilyn은 '*it's pretty funny*'라고 말하여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한 뒤 *well*을 사용하여 지금 하고 있는 요리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5) MARILYN: ... you know,  
 children with .. no heart,  
 ... or something,  
 you know,  
 can't ride the ride.  
 .. Stuff like that.  
 All the [bad] breaks.
- PETE: [Oh].
- MARILYN: You have to watch for the bad breaks.
- PETE: .. Right.

MARILYN: ... It's pretty funny.  
 ... *Well* let's just ... woop it up and put a little olive oil  
 in here, so these don't burn to death.  
 [SBCSAE 03]

담화표지어 *well*은 대면 대화에서 정보 추가를 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16)의 예문을 보면 Alina가 엄마와 Arnold, Lisabeth가 마침내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낸 뒤 *well*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예시는 Schiffrin(1987)과 Jucker(1993)가 제시한 것처럼 *well*의 후행 발화의 내용이 선행발화의 내용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well*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Blakemore(2002)가 제안하였듯이 *well*의 선행발화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된 맥락이 후행 발화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맥락일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 (16)에서 *well*의 선행발화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된 'Arnold와 Lisabeth가 엄마와 점심을 하였다'라는 맥락은 후행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well*의 질차적 의미를 통해 기존 가정을 더 강화하는 인지 효과를 얻도록 해준다.

(16) ALINA: t- like --  
 ... Did I tell you,  
 about when Mom was having ~Arnold and ~Lisabeth  
 over for lunch,  
 finally.  
 ... (H) Okay,  
*well*,  
 .. @Mom --  
 .. They call up in August,  
 and go,  
 .. I mean it's,  
 .. Daddy's been dead what,  
 seven years,  
 and finally it dawns on ~Lisabeth,  
 that she doesn't see Mom that much.  
 [SBCSAE 06]

정보 추가의 기능은 말차례 시작 표시 기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예문 (17)에서 Miles

는 브라질 클럽에 가서 브라질 음악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Jamie가 그곳의 밴드가 훌륭하다고 말하자 Miles는 *well*로 말차례를 시작하면서 매일 다른 밴드가 온다는 추가적 정보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매일 같은 밴드가 공연을 한다고 Jamie가 믿을 경우에 Miles는 밴드를 칭찬한 Jamie의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well*을 사용하여 Jamie가 인식했어야 했으나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맥락 가정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 (17) MILES: ... I'm so used to hearing those songs,  
cause I've heard em for the past three months,  
.. I didn't think anything of it,  
but then,  
(H) this guy played songs for a whole hour,  
and it was like,  
(H) eighty per cent of those songs I'd --  
.. that band had sung that very ni=ght.
- JAMIE: ... Mhm.  
... (SNIFF)  
... Pickup band's pretty good there.  
... Vi[va] --
- MILES: [*Well*] they have a different band [2every night2].
- JAMIE: [2Who was it2],  
Viva Brazil?
- [SBCSAE 02]

대면 대화에서 말차례 시작 표시 기능과 함께 나타난 또 다른 구조적 기능은 원래 주제로의 회귀 표시이다. 예문 (18)은 Pamela가 현세의 삶은 원래 존재하던 다른 삶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중간지점이라고 말한 뒤 Darryl이 말하는 상황이다. Darryl이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Darryl의 'what if worrying about that'이라는 발화를 듣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Pamela가 말차례를 끼어든다. 그러자 Darryl은 *well*을 사용하여 말차례를 다시 시작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계속 이어간다. Darryl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Deven에게 이미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는 Pamela의 주의를 다시 원래 하려던 발화로 이끌고자 후행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 *well*을 사용한 것이다.

- (18) DARRYL: ... (H) What if.  
 What .. if=.
- PAMELA: (Hx) Unhu=nh.
- DARRYL: What if worrying about that,
- PAMELA: %See,  
 this is what you told !Deven.
- DARRYL: *Well*,  
 what if worrying about that,  
 ... gotten in the way,  
 of you making positive choices for yourself in your life.  
 ... (H) Instead of just worrying about,  
 w- that you're he=re,  
 ... and making the best out of it.
- [SBCSAE 05]

이전 주제로의 회귀는 (19)의 예문처럼 말차례 중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Lynne은 말발굽 끼우는 과정은 기성품으로 나온 말발굽을 말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한 뒤 끼우는 것이라고 말한 뒤 (19)에서 큰 말이나 조랑말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뒤 *well*을 사용하여 원래 이야기하고 있던 말발굽 끼우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말차례 중간에 이전 주제로의 회귀를 표시하기 위해 *well*이 쓰인 경우는 1회였는데 이는 분석 자료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가족, 친구와의 대면 대화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코퍼스는 한 사람이 말차례를 갖고 있는 시간이 이야기 담화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말차례 끼어들기가 빈번해 회귀는 말차례 시작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19) Lynne: I mean,  
 you get into the big horses,  
 the --  
 like the Clydesdale  
 Shires,  
 that's a d- --  
 a whole different thing.  
 (H) Or ponies,  
 that's a whole different thing.  
 (H) But we're talking just the regular,

.. light horses you know.  
 .. (H) *Well* anyway,  
 you go get your --  
 .. Okay,  
 this is after you trimmed em.  
 .. (H) And you go get your shoe,  
 .. It's already made.

[SBCSAE 01]

대면 대화에 나타난 *well*의 또 다른 구조적 기능에는 직접화법 도입이 있다. 예문 (20)에서 Angela는 인용구 앞에 *well*을 사용하여 직접화법을 시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21)의 예시에서 Alina는 인용구를 *well*로 시작하면서 목소리 톤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인용구 끝까지 톤을 유지하지는 않고 마지막 발화 'I don't know why'는 본인의 목소리로 말하였다. Müller(2004)의 연구에서 화자가 인용구를 다른 목소리 톤으로 말할 때는 항상 *well*이 쓰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목소리 톤을 바꾸어 직접화법을 사용한 경우는 Alina뿐이었다. (20)의 예문에서 *well*의 선행발화는 그녀라는 인물이 무엇인가를 말했다는 맥락가정을 활성화시키며, 후행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well*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후행발화에 청자인 Doris의 주의를 끌게 한다. 따라서 Doris는 그녀가 한 말이 *well*의 후행발화라고 해석할 것이다. (21)에서도 *well*의 절차적 의미에 따라 청자는 후행발화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된 맥락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특히 (21)의 경우 전달 동사의 주어로 *she*가 쓰였지만 인용구의 주어는 *I*가 쓰인 상황에서 관련 맥락이 다른 인물에 관한 것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대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하는 청자의 처리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화자는 담화표지어 *well*을 사용하여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 맥락에서 후행발화를 처리하도록 가리킴으로서 청자의 처리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자는 *well*이 쓰이지 않는 인용구에서는 얻지 못할 수도 있는 후행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고 Schourup(2001)이 말하였듯이 화자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화법 도입의 기능으로 사용된 *well*은 이 기능의 특성상 발화 중간 위치에서만 나타났다.

- (20) DORIS: ... [@@@@@@@@@ (H)]  
 ANGELA: [(H) And,  
 @and @she --  
 (H) sh- she said],  
 (H) *well* it's alright to sit on it,

but don't put the ... footrest out.

[SBCSAE 11]

- (21) ALINA: [3And she's like3] <X sitting there= and X>VOX>,  
 (H) he said,  
 I would have been here,  
 but <VOX she was so late.  
 And getting her any place on time VOX>,  
 she's going,  
 (H) <VOX well,  
 I had to get rea=dy= VOX>5).  
 .. [I don't know why=.

LENORE: [@@@@@@@@ @@]@@@@

[SBCSAE 06]

다음으로 살펴볼 담화표지어 *well*의 구조적 기능은 말차례 유지이다. (22)의 예시에서 Marilyn은 New Yorker 신문 기사에 대해 말하는 중인데 마지막 말화에 약간의 숨을 두고 *well*을 사용한 뒤 *my*를 반복하였으나 말을 잊지 못하고, 약간의 숨이 있은 뒤 Roy가 말차례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3)에서 Alina는 Lenore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well*로 시작한 뒤 약간의 숨이 있고 다시 *well*을 사용한 뒤 약간의 숨을 두고 *he*를 말하였다. 하지만 다시 숨이 발생하고 *he*를 반복한 뒤 문장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과 (23)에서 화자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말을 계속 이어가고 말차례를 유지하겠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well*을 사용한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이 기능을 살펴보자면 화자는 *well*의 후행발화가 발화시점에서 화자가 생각할 수 있고 화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관련성을 갖는 것임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담화표지어를 사용하였지만, (22)의 경우 화자 스스로 적절한 발화를 이어가지 못해 말차례가 넘어가게 되고 (23)의 경우 마침내 적절한 발화를 완성하여 말차례가 유지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차례 유지 기능은 말차례 중간 중 발화 시작 부분에서 3회, 발화 중간 위치에서 10회 나타났다.

- (22) MARILYN: And I --  
 .. It was really --  
 .. I read the whole thing,  
 which is pretty rare @.

5) VOX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인용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 ROY: ... *Well* my my.  
 .. So I mean,  
 .. but his premise is not that mankind can't .. survive  
 on Earth.  
 [SBCSAE 03]
- (23) LENORE: ... How do you know.  
 ALINA: (H) *Well*,  
 ... cause *well*,  
 .. he --  
 .. he was a cocaine addict.  
 [SBCSAE 06]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조적 기능은 표현 수정이다. 예문 (24)는 Lynne이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인데 수백만 개의 인대와 힘줄이 있다고 말한 뒤 *well*을 사용하여 자신이 방금 했던 표현 'millions'를 'not millions'로 수정하고 있다. Lynne은 청자인 Lenore가 *well*의 선행발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well*을 사용하여 이 발화는 수백만 개는 아닌 상황에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 (24) LYNNE: and I mean,  
 there's,  
 ... (H) millions of ligaments,  
 and millions of .. tendons,  
 you know,  
*well* not millions,  
 but,  
 .. I mean,  
 LENORE: yeah,  
 [SBCSAE 01]

미국 영어 대화 코퍼스 SBCSAE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의 구조적 기능 분포는 아래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well*의 구조적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기능은 말차례 시작 표시 기능으로 말차례 시작표시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는 33회였고, 주제 전환, 정보 추가, 주제 회귀의 기능과 함께 사용된 경우는 총 47회였다. 말차례 시작을 표시하는 기능이 단독 혹은 복합 기능의 일부로 나타난 경우는 총 80회로 전체 구조적 기능의 48%에 해당하고, 말

차례 유지를 위하여 *well*을 사용한 경우는 13회로 7.8%를 차지하여 말차례와 연관된 기능이 전체 구조적 기능의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구조에서 말차례 관리와 관련된 기능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주제 전환이 단독 기능 혹은 말차례 시작 표시 기능과 함께 쓰인 경우는 35회로 전체 구조적 기능의 21%, 정보 추가의 기능이 단독 혹은 말차례 표시 기능과 복합적으로 쓰인 경우는 43회로 전체의 25.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화자의 관점이나 흥미의 변화에 따라 주제 전환을 표시하거나 선행담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담화 구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 대면 대화에 나타난 *well*의 구조적 기능

기능 분류	기능 빈도 (%)	위치 빈도(%)					
		말차례 위치			쉽 위치		
		말차례 시작	말차례 발화시작	말차례 중간 발화중간	<i>well</i> 앞	<i>well</i> 앞과 뒤	
말차례 시작	33 (19.8)	33 (41.3)	-	-	11 (18.7)	-	
말차례 유지	13 (7.8)	-	3 (10.7)	10 (16.9)	10 (16.9)	1 (50)	
주제 전환	7 (4.2)	-	7 (25)	-	2 (3.4)	-	
정보 추가	35 (21)	-	17 (60.7)	18 (30.5)	10 (16.9)	-	
주제 회귀	1 (5.3)	-	1 (3.6)	-	1 (1.7)	-	
직접화법 도입	25 (14.9)	-	-	25 (42.4)	-	-	
표현 수정	6 (3.6)	-	-	6 (10.2)	1 (1.7)	-	
말차례 시작	+주제 전환	28 (16.8)	28 (35)	-	-	15 (25.4)	1 (50)
	+정보 추가	8 (4.8)	8 (10)	-	-	4 (6.8)	-
	+주제 회귀	11 (6.6)	11 (13.7)	-	-	5 (8.5)	-
합계	167 (100)	80 (100)	28 (100)	59 (100)	59 (100)	2 (100)	



말차레를 기준으로 구조적 기능으로 사용된 *well*을 살펴보면 말차레 시작과 말차레 중간 부분에 나타난 경우가 각각 80회와 87회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말차레 중간 부분에 *well*이 나타난 경우 중 발화 중간 위치에 나타난 경우는 직접화법 도입 기능과 정보 추가 기능이 각각 30.5%와 42.4%로 발화 중간에 나타난 전체 구조적 기능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well*에 발생한 씬을 살펴보면 씬이 발생하고 *well*이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well*의 앞과 뒤에 씬이 발생한 경우는 2회였다. 특히 말차레 유지 기능의 경우 전체 13회 중 씬이 발생한 경우는 11회에 달했다. 말차레 유지 기능의 특성상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말차레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표현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씬과 함께 *well*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4.2.2. 상호작용적 기능

SBCSAE에 나타난 *well*의 상호작용적 기능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Lakoff(1973)와 Schiffrin(1987)이 제시한 불충분 표지이다. (25)의 예시에서 Jamie는 Sue Swing의 댄스 수업에서 하나씩 천천히 가르치는지를 묻지만 바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빠르게 가르치는지 묻고 있다. Miles는 Jamie의 두 번째 질문에 요구되는 *yes/no* 대답 대신 *well*을 사용하여 답하고 있다. Miles의 대답은 일종의 *yes*이지만 Jamie가 명확하게 *yes*라 답하지 않았으므로 Schiffrin(1987)과 Jucker(1993)가 말한 불충분 표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자면 *well*을 뒤따르는 대답이 Jamie의 입장에서 관련성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well*은 후행발화가 현재 발화 시점에서 화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발화라는 것을 가리키며 *yes/no*로 대답했을 때는 도출하지 못할 수 있는 'Sue Swing은 성격이 급하다와 같은 맥락 가정을 청자인 Jamie가 고려하도록 한다. 반면 (26)의 예문에서는 코르크 속에다 담배를 피웠냐는 Doris의 질문에 요구되는 답변을 Angela가 제공하면서 *well*을 함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Doris는 질문을 한 상황에서 Angela의 대답이 자신이 갖고 있는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Angela의 *yeah*라는 대답은 *well*의 절차적 의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청자에게 가장 관련된 대답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ll*을 사용했다는 것은 *well*이 생략된 발화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 즉 대답하기 꺼려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 (25) JAMIE: (H) don't they teach you to go,  
one two three=  
one two three=  
.. one two three=  
like that?

- ... (H) Or do they go like really fast like that.
- MILES: *Well* !Sue !Swing,<sup>6)</sup>  
I mean when she was teaching was definitely more sedate, and the same thing with [!Jeff] and !Vivian.  
[SBCSAE 02]
- (26) DORIS: ... You smoked it down into the .. cork,  
didn't you.
- ANGELA: ... Pardon?
- DORIS: .. (H) You smoked it down into the cork.
- ANGELA: .. (H) *Well*,  
yeah,  
you don't [like that].  
[SBCSAE 11]

대면 대화에서 담화표지어 *well*은 Jucker(1993)와 Blakmore(2002), Aijmer(2013)가 언급하였던 의견 차이를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예문 (27)에서 Harold와 Miles는 어느 바닷가 지역의 에이즈 발생률이 남성 기준 50%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인데 Harold가 HIV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Miles는 *well*로 시작하는 발화를 통해 HIV 양성이면 곧 병에 걸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Miles는 *well*을 사용하여 후행발화가 현재 논의에서 Harold가 인식하지 못한 전제로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며 잠재적으로 체면 손상 행위일 수 있는 자신의 발화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27)의 *well*은 공손 표지로서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sup>7)</sup>

- (27) HAROLD: .. Fifty perc-] --  
It was some --  
.. Like,  
.. a- m- --  
half or more than half of,  
(H) and it was .. fairly young men,  
... but,

6) !는 표시된 단어의 일반적인 음의 높이보다 높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7) (27)의 예시에 나타난 *well*은 구조적 기능인 말차례 시작 표시 기능도 하지만 4.2.2절에서는 상호작용적 기능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 were,  
had been exposed to HIV virus.  
It wasn't necessarily that they were ... infected.
- MILES: (H) .. *Well*,  
if you're HIV positive,  
... it's the same difference,
- HAROLD: ... [Mhm].
- MILES: [since they] feel that,  
... sooner or later [2you'll come2] down [3with the3]  
actual disease.
- [SBCSAE 02]

대면 대화에 나타난 *well*의 또 다른 상호작용적 기능은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문 (28)에서 Marilyn, Roy, Pete는 당근을 맛보고 있으며 Marilyn이 맛있다고 말하자 Roy도 당근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 이때 Pete는 *well*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발화 시점에서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 발화 즉, '당근이 맛있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Pete의 응답이 Marilyn의 의견과 동일하므로 Marilyn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well*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well*이 사용된 경우에는 *well*의 절차적 의미에 따라 추가적인 처리 노력 없이 *well*의 후행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well*을 통해 화자가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well* 없이 발화하였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29)의 예문에서 Sam이 은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놀랍다고 Doris가 말하자 Angela는 'Sam이 충고를 듣기 시작했다고' 대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ngela가 *well*을 사용한 것은 Sam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Doris가 인식하여야 Doris의 발화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따라서 Doris는 Angela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말에 Angela가 동의하지만 Sam의 변화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함축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28)과 (29)에 나타난 *well*은 부분적 동의를 표시하면서 화자의 태도 또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28) MARILYN: .. Mm.  
.. Hey that carrot's good.
- ROY: ... It's got --  
.. it's really [pretty --
- PETE: [Well that's good].
- [SBCSAE 03]

- (29) DORIS: ... ~Sam has been,  
 .. has taken such an interest in this retirement bit.  
 .. (H) ... That it --  
 .. it really surprises me.
- ANGELA: .. *Well* she's begun to listen.
- DORIS: .. Yes she has.

[SBCSAE 11]

마지막으로 대면 대화에서 *well*은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30)에서 Joanne과 Ken은 여행 위험 국가에 간 Jessie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Joanne은 여행 위험 국가로 출국한 사람들의 명단을 국가에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well* 앞에 *I mean, I'm saying*이 선행하여 *well*의 후행발화가 자신의 생각임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의견 제시의 기능으로 *well*이 쓰일 때 *I don't think, I think, I guess*의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경우는 총 5회였다. 이러한 기능은 화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4.2.1절에서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적 기능과는 구분된다. 또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도 *well*은 공손 표지의 기능 또한 표시한다. (30)에서 청자인 Ken은 *well*의 후행발화를 통해 'Jessie는 중요 인물이다', '중요 인물인 Jessie의 동향은 국가가 관리할 것이다'와 같은 함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Joanne이 생각하기에 선행발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발화를 *well*로 시작하고, 이 발화로 화자의 주의를 끌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 (30) JOANNE: (H) That's what's worri- .. worrisome,  
 <X but that X> I'm sure,  
 if they --  
 I'm sure they have ~Jessie on a list anyway.  
 [but,
- KEN: [oh,  
 yeah].
- JOANNE: I mean],  
 (H) but I'm saying,  
*well* he's the only existing live member of the Peace  
 and Freedom Party I=eft.
- KEN: [@@@@@

[SBCSAE 14]

미국 영어 대화 코퍼스 SBCSAE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의 상호작용적 기능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대면 대화에 나타난 *well*의 상호작용적 기능

기능 분류	기능 빈도 (%)	위치 빈도(%)				
		말차례 위치			쉽 위치	
		말차례 시작	말차례 발화시작	말차례 중간 발화중간	<i>well</i> 앞	<i>well</i> 앞과 뒤
불충분 표지	21 (22.3)	21 (25.9)	-	-	7 (18.9)	3 (100)
의견 차이 + 공손 표지	18 (19.2)	18 (22.2)	-	-	9 (24.4)	-
동의 + 공손 표지	25 (24.5)	20 (24.7)	5 (35.7)	-	8 (21.6)	-
의견 제시 + 공손 표지	38 (37.3)	22 (27.2)	9 (64.3)	7 (100)	13 (35.1)	-
합계	102 (100)	81 (100)	14 (100)	7 (100)	37 (100)	3 (100)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적 기능으로 *well*이 사용된 경우에는 불충분 표지, 의견 차이의 기능과 공손 표지, 동의와 공손 표지, 의견 제시와 공손 표지의 기능을 하였다. *well*이 의견 제시와 공손 표지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가 3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기능들은 20% 내외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말차례 위치에서는 전체 102회 중 81회로 말차례 시작 부분에서 *well*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발화 중간 위치에서는 의견 제시와 공손 표지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만 찾아볼 수 있었다. 상호작용적 기능으로 사용된 *well* 중 쉽이 발생한 경우는 40회로 전체 상호작용적 기능 중 반수를 넘지 않았으며, 대부분 *well* 앞에 쉽을 두고 *well*을 발화하였고 *well*의 앞과 뒤에 쉽이 발생한 경우는 3회로 불충분 표지의 기능을 수행할 때만 해당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담화표지어 *well*이 갖는 철차적 의미를 통해 미국 영어 대면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의 구조적 기능과 상호작용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well*은 대면 대화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났고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다. 구

조적 기능에서는 말차례 시작하거나 말차례 가져오기와 같은 말차례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정보 추가나 주제 전환과 같은 담화 텍스트 구조를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적 기능에서는 청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담화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맥락 가정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동의를 표시하면서 화자의 태도 또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화 상대방이 요청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발화를 하며 *well*을 사용한 경우 요청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때는 도출하지 못할 수 있는 인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요구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well*을 사용한 경우에는 *well*이 생략된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담화표지어 *well*이 표시하는 다양한 기능은 화자의 능력과 선호도에 맞추어 화자가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 발화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 *well*이 갖고 있는 절차적 의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차례 위치를 기준으로 *well*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말차례 순서 교대가 일어나는 말차례 시작 부분에서 *well*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화자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동의를 표현하는 상호작용적 기능은 대부분 말차례 시작 부분에서 나타났는데 대화 담화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말차례를 가져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well*이 쉼과 함께 발생한 경우 쉼을 두고 *well*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였으며 특히 말차례 유지 기능의 경우 대부분 쉼과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찾기 위한 시간 끌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면 대화에 초점을 두고 *well*의 기능과 빈도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로 이야기 담화, 전화 대화와 같이 다양한 담화 유형에 사용된 *well*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기능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쉼의 기능과 담화 효과를 분류하여 담화표지어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담화표지어의 연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ijmer, K. (2013). *Understanding pragmatic markers: A variational pragmatic approac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ijmer, K. & Simon-Vandenberg, A. M. (2003). *Well* in English, Swedish and Dutch. *Linguistics*, 16, 231-254.
- Baiat, G. E., Coler, M., Pullen, M., Tienkouw, S., & Hunyadi, L. (2013). Multimodal analysis of "*well*" as a discourse marker in Conversation: A pilot study. Paper presented at 4<sup>th</sup>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Infocommunication, Budapest, Hungary. Retrieved from

[http://www.culingtec.uni-leipzig.de/ESU\\_C\\_T/sites/default/files/docs/Esfandiaricoginfocom\\_2013.pdf](http://www.culingtec.uni-leipzig.de/ESU_C_T/sites/default/files/docs/Esfandiaricoginfocom_2013.pdf)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Blakemore, D. (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inger, D.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Carlson, L. (1984). 'Well' in dialogue games: A discourse analysis of the interjection 'well' in idealized convers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Cuenca, M-J. (2008). Pragmatic markers in contrast: The case of well. *Journal of Pragmatics*, 40, 1373-1391.
- De Klerk, V. (2005). Procedural meanings of well in a corpus of Xhosa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37, 1183-1205.
- Du Bois, J., Schuetze-Coburn, S., Cumming, S., & Paolino, D. (1993).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 In J. Edwards & M. Lampert (Eds.) *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methods for language research* (pp. 221-26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Fraser, B. (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 383-395.
- Heritage, J. (2015). Well-prefaced turn in English conversation: A conversation analytic perspective. *Journal of Pragmatics*, 88, 88-104.
- Jucker, A. (1993). The discourse marker well: A relevance-theoretic account. *Journal of Pragmatics*, 19, 435-452.
- Lakoff, R. (1973). Questionable answer and answerable questions. In B. R. Kachru, B. Lees, Y. Malkiel, A. Pietrangeli, & S. Saporta (Eds.), *Issues in linguistics in honor of Henry and Renée Kohane* (pp. 453-467).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 Müller, S. (2004). 'Well you know that type of person': Functions of well in the speech of American and German students. *Journal of Pragmatics*, 36, 1157-1182.
- Norricks, N. (2001). Discourse markers in oral narratives. *Journal of Pragmatics*, 33, 849-878.
- Owen, M. (1981). Conversational units and the use of 'well ...'. In P. Werth (Ed.), *Conversation and discourse* (pp. 99-116). London: Croom Helm.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urup, L. (1985). *Common discourse particles in English conversation*. New York: Garland.
- Schourup, L. (2001). Rethinking 'well'. *Journal of Pragmatics*, 33, 1025-1060.
- Sperber, D. & Wilson, D. (1986/1995). *Relevance*. Oxford: Blackwell.
- Svartvik, J. (1980). *Well* in conversation. In S. Greenbaum, G. N. Leech, & J. Svartvik (Eds.) *Studies in English linguistics for Randolph Quirk* (pp. 167-177). Oxford: Blackwell.
- Tognini-Bonelli, E. (2001). *Corpus linguistics at work*. Amsterdam: John Benjamins.
- Wilson, D. (2014). Relevance theory.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6, 129-148.
- Wilson, D. & Sperber, D. (2012). *Meaning and relev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zerbicka, A. (1976). Particles and linguistic relativity. *International Review of Slavic Linguistics*, 1, 23-67.

[분석대상 코퍼스]

- Du Bois, J. W., Chafe, W., Meyer, C., & Thompson, S. A. (2000). *Santa Barbara corpus of spoken American English part 1*. Philadelphia: Linguistic Data Consortium. ISBN 1-58563-164-7.

**최인지**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 (055) 772-2192  
이메일: ijchoi@gnu.ac.kr

Received on September 30,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9, 2016

Accepted on December 30, 2016